

조선시대 금천 동헌 자리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18-2

지정년도 1968

관리기관 서울

수령 886년

수고 19m

흉고둘레 9.1m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0-106

37° 27' 05.37" N

126° 54' 29.25" E

동일구역 몇 그루의 고목 중 하나인 보호수(서18-2) 은행나무는 도심의 높은 건물과 도로 사이에서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풍치림의 구실을 하였으나 현재는 정자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인근에 또 다른 보호수 은행나무가 있으나 생육이 좋지 못한 편이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88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 높이둘레는 91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거의 말라죽어 높이 10m 위쪽이 잘려 있으며, 말라죽은 부분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이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원줄기의 나무높이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나 사방의 그루터기에서 자란 줄기가 원줄기를 대신하고 있다. 그루터기 줄기는 겉가지를 내면서 위로 솟구쳐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나쁜 편이다. 둘레는 팬스가 설치되었으며, 지표면은 작은 자갈이 깔려 있고 야간 전등이 시설되어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뱀과 관련이 있다. 1974년 도로공사 때의 일이다. 고목의 은행나무를 없애지 않고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다. 은행나무 주변을 곡괭이로 파고 잔뿌리를 자르면서 주변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한 쌍의 구렁이가 출현하였다. 그때 어떤 어른신이 구렁이를 잡아다가

꼭 끊어 먹었다. 그 후 그 어른은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고, 어른의 부인도 돌아가셨다. 또 한달 안에 아들도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안 좋은 일이 계속되어서 집을 팔았다. 그곳에는 집이 들어서지 않았고 쉼터가 되었다.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조선 금천현의 처소인 동헌 자리이며, 정조대왕이 능행할 때 행궁으로 사용하였다. 정조 19년(1795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화성(현재 수원)으로 행차하였다. 8일간의 행차에서 정조는 시흥행궁에서 이틀간 머물렀고, 격쟁(조선시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에 거동하는 길에서 징이나 팽과리를 쳐 임금에게 하소연하던 제도)을 통하여 백성들과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은행나무는 동네의 상징이다. 인근에는 골목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이라 불렸다. 그러다가 시장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어느 상인이 은행 나무시장이라 이름을 바꿔 말하면서 2012년에 은행나무시장으로 정식 이름을 등록하였다. 마을버스 정류장 중 한 곳의 이름도 시흥동 은행나무이다.

